9m 길이 대작 '입체공간-06-K'

# "광주 미술의 자존심 보여줘야죠"

## 부산 '송혜수 미술상' 수상 기념전 갖는 김종일 전남대 명예교수

### 70년대 추상회화운동 주도
### 부산 외 지역 첫 수상 영예
### 내달 8~20일 금련산갤러리
### 100호 이상 대작 15점 출품

"처음으로 부산에서 하는 전시라 부담감이 있습니다. 광주 미술의 자존심을 보여주기 위해 100호 이상 대작들로만 준비했는데 운송부터 설치까지 만만치가 않네요."

'제11회 송혜수 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종일(74·사진) 전남대 예술대학 명예교수는 최근 수상 기념전 준비 때문에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다. 김 교수는 "작품들을 일일이 분할해서 재설치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올해 부산에서 열린 전시 중 최고의 전시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김교수가 이번에 수상한 '송혜수 미술상'은 부산 1세대 서양화가인 고 송혜수(1913~2005) 화백의 유지를 잇고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미술협회가 매년 운영하고 있는 상이다. 지난해까지는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장하며 김 교수는 부산 외 타 지역에서 처음으로 수상한 작가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심사위원들은 심사평에서 "김화백의 진지한 예술적 실험 정신과 한국적 추상회화를 통해 한국 미술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이번 수상은 동서양의 추상세계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창조한 점이 반영됐다.

1964년 현대미술 비구상단체로 창립된 (사)에뽀끄의 원년 멤버이자 이사장을 역임한 김 교수는 우리나라 1970년대 추상회화운동을 주도했다.

김 교수는 흑백 모노톤으로 공간이 갖는 변화와 조화를 표현해오면서 '블랙 아티스트(black artist)'라고 불린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검정색과 대비되는 빨강, 파랑, 노랑 등 원색을 과감히 사용해 독특한 질감과 구성미가 돋보인다. 이차원적 평면 공간에 검은색 색채 하나만으로 입체감을 부여하며 서양에서 유행한 물질적 형상과는 다른 동양의 정신세계를 구현해냈다.

그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다. 최근작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건축물이나 도시의 디자인적 요소를 적용했다. 전체적으로 밝은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고 굵직한 선이 들어가있다. 2000년대 이후 선보이고 있는 '순수' 시리즈는 평면 위에 시간과 공간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그의 실험정신이 담겨 있다.

수상 기념전은 12월 8~20일 부산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린다. 김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100호 이상 대작 약 15점을 출품한다. 특히 전시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울 9m 크기의 '입체공간-06-K'는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 직선과 사각으로 이루어진 작품세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처음으로 원을 표현한 최근작들도 선보인다.

홍익대 서양화과, 중앙대 예술대학원을 졸업한 김 교수는 개인전 30여회를 열였고 스페인·베네수엘라·인도·브라질 등 국내외 그룹·초대전에 참여했다. 1997년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을 역임했으며 대통령근정포장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문의 010-3608-744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말 없는 내 친구, 소나무

## 김준호 작가 19~25일 갤러리 D서 희수 기념展

'솔뫼'

김준호 작가(77)가 희수를 맞이해 갤러리 D에서 19일부터 25일까지 '김준호 소나무 드로잉'전을 연다.

사실주의에 기반을 두고 풍경과 정물을 다뤘던 김 작가가 이번 전시에서는 유화가 아닌 콩테 연필만을 가지고 작업한 소나무 드로잉 40여점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소나무를 자신의 분신이자 자신의 심경을 이해해주는 말 없는 친구로 생각한다. 이번 전시에서 콩테로 강렬하게 묘사된 소나무를 선보이며 자신의 화업을 되돌아보고 가족과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는 작품들은 600년이 넘는 노송에서부터 30~40년생 젊은 소나무, 독야청청 홀로 서있는 소나무에서 군집을 이룬 소나무 숲까지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 앞서 영암 덕진의 '곰솔', 하동 평사리와 태안반도 안면도의 '부부송', 무등산 화암부락의 '한솔', 식영정의 '노송' 등을 직접 찾아 다니며 현장에서 스케치를 했다.

김 씨는 "현장에 직접 가봐야 작품의 위치, 주위 배경 등을 통해 소재가 가진 이야기를 제대로 알 수 있다"며 "항상 발로 뛰며 그림을 그렸고 작품에 생명력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희수를 맞은 소감을 밝혔다.

광주사범대학교 미술과를 졸업한 김 씨는 16회의 개인전을 가졌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광주시 미술대전, 전라남도 미술대전 등의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문의 062 222 8011. /김용희기자 kimyh@

#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 '인당수 연가' 공연

## 22일 광주전통문화관 서석당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은 올 한해 무등산자락 광주전통문화관에서 다양한 무용 작품을 공연해왔다. 광주문화재단이 공모한 지역특화문화거점 사업에 선정된 '光. 7色 7舞-무돌을 춤추다' 프로젝트를 통해서다.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이 올 마지막 공연을 오는 22일 오후 2시 광주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선보인다. 작품은 '심청전'을 재해석한 '인당수 연가'다.

사람들에게 친숙한 심봉사와 효녀 심청의 이야기를 현재적 의미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독특한 심청을 표현해 낸 한국춤과 판소리, 관현악이 어우러졌다.

조선대 김미숙 교수가 예술감독 및 안무를 맡았으며 프롤로그 '유년의 시대'부터 '물속으로', '끝없는 여정', '시간의 보상', '연꽃처럼' 등 7장으로 구성돼 있다. 김수영, 김차연, 김보라, 김원선, 나유정, 서로사, 박형주, 박소진, 박정민, 국미선, 조진솔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230-74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전남대병원 갤러리 전시 작품 모음집 발간

## 작가 30여명 작품 700여점 담아

전남대학교병원이 CNUH갤러리의 전시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음집을 최근 발간했다.

이번 모음집은 갤러리에서 진행된 전시가 환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따라 더 많은 환자들이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모음집에는 첫 초대작가 박동신씨를 비롯해 이혜경·김효삼·오견규·박정용·조숙·김희남·정경래 등 한국·서양화가 30여명의 작품 700여점이 모두 담겨있다.

병원측은 작품모음집을 외래진료대기실 또는 입원실 등 병원 곳곳에 비치해 환자와 내방객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3년 1월 전남대병원 1동에 오픈한 CNUH갤러리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심리적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매월 새로운 작품전을 개최하고 있다. 문의 062-220-509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롯데갤러리 '창작지원전' 이인성 초대전

'아지트'

광주롯데갤러리가 12월1일까지 '2015 창작지원전' 3부로 이인성 작가를 초대해 '공(空)'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창작지원전은 광주·전남 지역 출신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롯데갤러리가 17년째 진행하고 있는 전시다.

표현주의적 성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작가는 삶의 혼란, 소외, 허무함을 은유적으로 담아낸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 주제인 '공(空)'은 비어있음을 뜻하는 불교적 용어지만 작가는 개인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의미를 확대시킨다. 무기력함, 혼란 등 삶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은 실체들을 작품에서 표현한다. 조선대 미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이씨는 프로젝트 그룹 'V'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21-1807~8. /김용희기자 kimyh@